

박지원 두산 부회장도 참관

“로보틱스·IoT 등 신사업 모색”



경영진과 함께 기술 동향 파악
협동로봇·드론용 전지 등 발굴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이 경영진과 함께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국제전자제품박람회 'CES 2019'를 참관한다고 6일 밝혔다.

박지원 부회장과 동현수(현 두산 사업 부문 부회장, 그룹 CDO(최고디지털경영자) 형원준 사장, 스카트 박 두산팍켓 사장 등 경영진은 이번 참관을 통해 최신 기술 동향을 파악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예정이다.

박지원 부회장은 특히 로보틱스, 자율주행, 사물인터넷(IoT) 분야 글로벌 기업의 전시관을 중점적으로 둘러보며 그룹 사업과의 연계를 검토하고 신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찾을 계획이다.

두산 최고 경영진은 미국 CES, 독일 하노버 산업박람회(하노버 메세) 등 최신 기술을 확인할 수 있는 현장을 지속해



박지원 두산그룹 부회장

서 찾아 협동로봇, 드론용 연료전지 등 그룹의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있다.

일례로 두산은 지난해 6월 유럽 최대 규모 로봇·자동화 분야 전시회인 독일 '오토매티카'에서 2017년 양산을 시작한 협동로봇의 다양한 솔루션을 선보여 호평을 받았다.

또 협동로봇 양산 1년 만에 독일, 프랑스, 중국 등 세계 8개국에서 13개 판매망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밖에 두산은 작년 9월 '2018 인터디

론' 전시회에서 처음 공개한 자체 개발 드론용 연료전지팩을 올해 양산할 예정이다.

해당 제품은 1회 충전으로 약 2시간의 비행이 가능해 30분 남짓한 기존 드론용 배터리의 비행시간 한계를 극복한 것이 강점으로, 향후 발전소 설비 관리나 산림 모니터링, 건설·농업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될 수 있다.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디지털 전환' 작업도 속도를 내고 있다.

두산중공업은 지난해 11월 인도 석탄 화력발전소에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솔루션을 공급하고 가동을 시작했다.

이 솔루션을 토대로 발전소는 수십만 건의 운전 시나리오를 분석해 발전 효율을 개선하고 질소산화물(NOx) 등 환경물질 발생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게 두산 측 설명이다.

두산인프라코어는 5G 통신을 기반으로 하는 초장거리 건설기계 원격제어에 성공했다. 이 기술은 향후 사람이 직접 작업하기 어려운 위험·오염 지역에 활용될 전망이다.

/정연우 기자 ywj964@metroseoul.co.kr



LG디스플레이가 CES2019에서 65인치 8K OLED 디스플레이를 공개한다.

/LG디스플레이

8K 크리스탈 사운드 OLED 첫 선



시장에 다양한 니즈로 선제 대응

TV 외에도 다양한 솔루션 적용

LG디스플레이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개최되는 'CES 2019' 전시회에서 5인치 8K OLED, 88인치 8K 크리스탈 사운드 OLED 등 신제품 OLED를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 LG디스플레이는 급부상하고 있는 상업용과 자동차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만의 차별화된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88인치 8K OLED를 세계 최초로 선보이며 8K 시대를 연 LG디스플레이는 올해 65인치 8K OLED 신제품으로 8K 제품 라인업을 강화하며 OLED가 구현하는 8K의 차별화된 프리미엄 가치를 강조한다.

OLED는 자발광 디스플레이로 초고 해상도 구현 시 3300만개의 픽셀을 하나 하나 컨트롤해서 한층 더 세밀하고 정밀한 표현이 가능하다. 동시에 개구율 감소로 인한 휘도(밝기) 저하가 적고 별도의 시야각 보상이 필요하지 않아 어느 각도에서 시청하더라도 밝고 선명한 화질을 감상할 수 있다.

LG디스플레이는 이번에 최초로 공개한 65인치 8K OLED 패널로 섬세하고 실감나는 최고 수준의 8K 화질을 선보일 계획이다.

또 기존 3.1 채널 사운드에서 저음과 고음 영역대를 확장해 3.2.2 채널 사운드로 진일보한 88인치 8K 크리스탈 사운드 OLED를 최초로 공개한다. 이 제품은

'돌비 애트모스'도 지원, 화면 내 사물의 움직임이나 위치에 따라 상·하·좌·우에서 입체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사운드를 구현한다.

현존하는 TV 디스플레이 중 가장 빠른 3.5m/s의 응답속도를 구현하는 65인치 UHD 크리스탈 모션 OLED 신제품도 선보인다. OLED가 제공하는 최고의 화질에 빠른 응답속도가 더해져 스포츠나 액션 시네마 감상 시 끌림 없이 실감나는 영상을 구현한다.

급부상하고 있는 상업용·자동차용 시장에 대응하기 위해 LG디스플레이의 차별화된 기술을 적용한 제품도 공개할 계획이다. 우선 상업용 시장을 겨냥해 터치 센서를 패널 내부에 내장한 LG디스플레이의 인터치 기술을 사인지에 적용해 높은 터치 정확도와 또렷한 화질, 슬림 디자인을 구현한 86인치 UHD LCD 전자칠판 등 다양한 사인지 제품을 선보인다.

자동차용 디스플레이는 LTPS 기반의 초대형 29인치 풀 대시보드를 포함, P-OLED(Plastic OLED) 기반의 12.3인치 QHD 정보안내디스플레이(CID), 12.8인치 센터페시아 등 신제품을 선보인다. 이 외에도 투과율 45%를 자랑하는 세계 최대 크기의 12.3인치 투명 OLED 디스플레이 등 자동차용 디스플레이 제품을 최초로 공개한다.

한상범 LG디스플레이 부회장은 "LG 디스플레이는 차별화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트렌드 및 시장의 다양한 니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시장을 이끌어 왔다"며 "OLED가 구현하는 프리미엄 가치를 TV는 물론 다양한 솔루션에 적용해 시장을 확대해 나감으로써 선도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유진 기자 ujin6326@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 팝아트 작품 입는다



팝아트 3대 거장 케니사프 작품
리키·로비, 전시장 곳곳서 이동

LG전자 로봇청소기 '코드제로 R9 씽큐'가 예술작품으로 거듭났다.

LG전자는 오는 3월 3일까지 서울 신천동 롯데뮤지엄에서 열리는 '케니 사프, 슈퍼팝 유니버스'에 코드제로 R9 씽큐로 만든 팝아트 캐릭터 작품이 전시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세계 팝아트 3대 거장으로 불리는 케니사프 작품을 전시하는 자리다. R9 씽큐는 케니사프 손을 거쳐



LG전자는 케니 사프가 만든 R9 씽큐를 '슈퍼팝 유니버스'에 전시한다고 밝혔다.

/LG전자

큰 눈을 뜨고 전시장 곳곳을 누빈다. '리키'와 '로비' '리타'라는 이름의 캐릭터 작품으로 태어났다.

LG전자는 케니 사프 인증을 받은 캐리

터스티커를 제작해, 오는 2월 말까지 R9 씽큐 구매 고객 1만명에 제공한다.

전시회 할인쿠폰도 함께 제공한다.

/김재용 기자 juk@

강력한 멀티미디어 성능에 얇고 저렴한 'Q9' 11일 출시

LG전자, 보급형 스마트폰 선배
출고가 49만원으로 실속도 챙겨

LG전자가 보급형 스마트폰 Q9을 출시한다. LG전자는 11일부터 국내 이통3사를 통해 Q9 판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Q9은 강력한 멀티미디어 성능을 특징으로 한다. 6.1인치 화면에 QHD+ 고해상도 디스플레이다. 밝기는 최대 1000니트다.

오디오는 하이파이 쿼드 맥을 장착해 왜곡률을 명품 오디오 수준으로 줄였다. 중저음을 강화해 속이 빈 물체에 스마트폰을 올려놓으면 스피커처럼 쓸 수 있는 '뽀박스 스피커' 기능도 있다.

편의 기능도 다수 탑재했다. LG페이와 AI카메라, IP68등급 방수 방진 등이 다. 미국 국방부 군사 표준규격인 MIL-



LG전자는 11일 Q9을 출시한다.

/LG전자

STD 810G에서 고온/저온, 고습, 진동, 일사량 등 14개 항목도 통과했다.

그러면서도 두께는 7.9mm로 Q시리즈 중 가장 얇다. 후면에는 강화 유리를 나노미터로 깎았고, 무광 컬러로 지문과 얼룩을 잘 묻지 않게 했다.

신제품은 프리미엄 제품군에 적용된 다양한 편의기능과 세련된 디자인을 완성도 높게 담았다. 출고가는 49만 9400원으로 실속 있는 신년·졸업·입학 선물을 찾는 고객에게 제격이다.

/김재용 기자

코트라, '통합 한국관'서 中 中 中 수출 지원

코트라(KOTRA)는 한국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KEA)와 공동으로 오는 8~11일(현지시간) 미국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가전·IT 전시회 'CES 2019'에 통합 한국관을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통합 한국관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168개사가 참가해 4차 산업혁명 관련 첨단기술을 선보인다.

코트라는 대기업과 달리 자체적으로 홍보관을 차릴 여력이 안 되거나 혼자서는 관심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위해 2000년부터 CES에 한국관을 만들어 참여하고 있다.

2000년 첫 참가 이후 올해가 20번째다. 올해는 창업진흥원과 함께 36개사로 구성된 스타트업관도 운영한다.

통합 한국관에 참가한 기업 중에는 길

재소프트가 다각도 초음파로 태아 얼굴을 촬영하는 3D 기술을 접목한 가상현실(VR) 제품을 선보인다.

마이크로시스템은 빛물과 먼지를 스스로 청소하는 유리를, 포트투마루는 최근 미국 스탠퍼드대 기계 독해 경진대회에서 구글과 공동 1위를 차지한 딥러닝 기반 검색 시스템을 전시한다.

룬랩은 피트니스, 스포츠 및 바이오 테크 분야에서 CES 혁신상을 받은 스마트 생리컵을 선보인다. 스마트 생리컵은 진동으로 교체 시기를 알리고, 생리량과 혈액, 주기, 체온 등을 측정해 건강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코트라는 아마존, HP, 뉴에그 등 유력 기업의 구매담당자를 초청해 한국관 참가기업과의 구매 상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연합뉴스